

HOME > 전국 > 인천·경기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 ‘2026 미래세대, 정약용 축제’ 1900여 명 방문

✎ 김동환 기자 | ⌚ 승인 2026.10.20 08:09

어린이 작품 1,500점 전시, 미니랜드, 청소년 주도 체험·마당극 등 이틀간 차별화된 역사·문화 콘텐츠 제공



관내 어린이·청소년과 시민 19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정약용 펀그라운드 ‘2026년 미래세대, 정약용 축제’. 사진=남양주도시공사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정약용 펀그라운드 ‘2026년 미래세대, 정약용 축제’에 관내 어린이·청소년과 시민 19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지식나눔터협동조합 등 민·관·학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적 교육 및 체험 콘텐츠를 접목해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과 역사·문화적 소양 함양을 도모했다.



정약용 펀드라운드 ‘2026년 미래세대, 정약용 축제’ 행사장 전경. 사진=남양주시공사

첫날인 지난 16일은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정약용 문화제-다산으로 소풍가요’가 펼쳐졌다. 정약용 선생을 주제로 한 어린이 작품 1500점이 전시됐다. △모자 만들기 △키링 및 가훈 캔버스 만들기 등 10여 종의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더불어 △레일기차 △회전그네 등 15종의 놀이기구를 갖춘 ‘미니랜드’와 남양주시 청년여유농 ‘달려라 연구소’가 참여한 플리마켓 부스도 함께 열려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지난 17일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정약용 미래세대와 놀장(場)’이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인문 고전 책쓰기 △양말목 키링 및 화분 만들기 △행운 거북이 키링 만들기 △종이비행기 접기 및 멀리 날리기 대회 등 총 11가지의 체험 코너가 선보였다.

또한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한 ‘조안의 가을, 다산의 책장을 열어라’를 비롯해 정약용 선생의 일생을 해학적으로 그린 마당극 공연, 청소년 합창단, 가야금 산조 연주, 플리마켓 등이 어우러져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이번 축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정약용 선생의 실학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온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즐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견고한 지역 네트워크 협업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창의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약용 퍼그라운드는 AI 기반 의견 수렴 시스템 도입 제안 및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등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가 후원하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주최하는 ‘2026년 우수 청소년 운영위원회’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김동환 기자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